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0 ~ 11/26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닫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커스
3	알고 보면 관점은	마가	불광출판사	8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4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정전	한겨레출판사	9	우리말 능엄경	황정원	운주사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10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삼천 배 해도 빌 수 없지만 그 말씀 늘 곁에

참선 잘 하그래이
김형호 · 한승호 외 지음
김영사 펴냄
1만5천원

“삼천 번의 절은 곱박 하루 동안 해야 하는데, 그 절을 하는 동안에 바보가 아닌 한에는 성철 스님을 만나 빌고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고가 모두 스스로 풀릴 터이다. 그게 풀렸다면 스님을 봐야 하는 이유가 소멸되는 것 아닌가.”

성철 스님,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삼천 번의 절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많은 절을 해도 그를 만날 수 없다. 이제 그를 만나는 길은 그를 그리워하는 길 밖에 없다.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을 그리는 이들이 글을 모아 스님을 만나러 간다. <참선 잘 하그래이>는 문단, 예술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계의 저명인사 스물일곱 명이 스님을 추모하는 에세이집이다.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오랜 기간 준비했다.

한 시대에 가르침을 주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거룩한 일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후대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모두의 복인 것이다. 한 종교에 귀의한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초월한 가르침을 남긴 성철 스님은 많은 한국의 선지식들 중에서 가장 큰 울림을 남긴 선지식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1967년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대중을 향한 가르침을 시작한 성철 스님은 암자를 막고 10년간의 동구불출과 8년간의 장좌불와로 수행의 최고경지를 이루고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스님은 한 발자국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세인의 가슴에 길이 남을 법어를 남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짧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품은 가르침은 30년이 지나도록 대중의 가슴에 머물고 있다.

책의 필자들은 사계의 저명인사이다. 크게 분류하여 본다면 큰스님을 직접 뵈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뵈지는 못했지만 출판이나 방송 등 간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감화된 사람들이다.

삼천 배를 다하지 못해 빌고 싶었던 선지식들을 빌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야기, 삼천 배를 하고도 스님을 만날지에서 밖에 볼 수 없었던 이야기, 열반 소식을 듣고 다비장으로 달려갔던 이야기, 흥내 낼 수 없는 삶에 감동하고, 다시 볼 수 없음을 슬퍼한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감동하고 그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사하며 쓴 글들은 깨침의 세계를 향한 진지한

성철 스님과 아비라기도
장성욱 지음
김영사 펴냄
1만3천원

노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스물여섯 편의 이야기를 읽고나면 성철 스님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인연의 깊고 얇음을 떠나 생전 당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성철 스님은 속인으로 태어나 부처의 길을 걸었다. 1967년 해인총림 초대 방장에 취임하고 그해 겨울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을 위해 하루에 두 시간씩 법문을 했다. 그 유명한 ‘백일법문’이다. 백일법문은 불교의 근본 진리가 선과 교를 통해서 백도에 있음을 밝히니 선종의 정통 종지는 돈오돈수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18년 동안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퇴실당과 백련암에 머무르면서 흔들리지

저명인사 27명 스님 추모 에세이

‘구법의 길’ 가치 보여주는 글들

성철 스님의 ‘아비라기도’ 자세히 소개

고통 견디어 낼수록 마음 평온해지는 기도

않는 선풍(禪風)으로 가야산 호랑이로 불렸다. 1993년 11월 4일 새벽, 삭발하고 ‘성철’이란 법명을 받은 해인사 퇴실당에서 ‘참선 잘하라’는 한 말씀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오직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용기, 그 결의를 평생토록 지킨 철저한 수행, 무소유와 절약의 정신은 바로 ‘우리시대 부처’의 모습이었다. 한 시대를 책임져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일 것이다. <참선 잘하그래이>는 그렇게 한 시대를 가르치고 떠난 스승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애타계 스승을 부르는 에세이다. “자기를 바로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르시던 참되고 소박한 가르침이 가슴과 가슴에 남아 있고, 여전히 가슴에서 가슴으로 옮겨 불고 있다.

“단지 3박 4일,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기도로 몸과 마음이 그토록 청정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함께 출간된 <성철스님과 아비라기도>는 삼천 배와 능엄주 독송, 아비라기도를 40여 년간 몸소 실천해온 저자의 체험록이자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삼천 배를 해아 만날 수 있었던 성철 스님. 이제는 삼천 배를 해도 스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스님이 남긴 삶과 가르침은 늘 우리 가슴 속에 있다.

성철 스님이 만든 아비라기도는 중국 당나라 때 총림의 수행법으로 전해 오던 것으로,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기도다. 기도는 “옴아비라 흠감 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장래해장을 하고 외우는 기도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먼저 108배의 예불대참회문을 마친 후 법신진언을 30분간 외우고 대불정능엄심주를 독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시간, 이것을 입제일인 첫날엔 5회, 둘째, 셋째 날엔 8회, 마지막 날에는 3회를 반복한다. 쉽지 않은 기도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어 낼수록 마음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몸은 한없이 가볍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환희심과 자신감이 솟는다고 한다. 책은 아비라기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매뉴얼이다.

저자는 “참선의 경지가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이르렀음을 아는 방법은 영가대사의 말처럼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고 독약을 마셔도 전혀 동요가 없는 한가롭고 한가로운 경지를 체득하는 일이다. 아비라기도는 참선을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바탕이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초연하게 삼매에 들어 화두를 타파하면 기도 중 득도할 수도 있다.”며 “진정 고요한 무아의 상태로 기도에 임해야지 무엇인가 체험하고 얻기 위한 기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하는데 앞장서온 원택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장교수님의 개인적인 체험담이지만 큰스님 계시 때 큰스님을 친견하고 지금까지 백련암이나 문도사찰 혹은 집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해 오시는 모든 분들의 체험록이다.”며 30년 동안 풀어왔지만 미처 풀지 못했던 숙제를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에 맞추어 발간하게 되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서장> 원문의 맛을 느끼다

서장, 대해보각선사서

일휴 역주 | 정우서적 펴냄 | 3만5천원



한국 선수행의 대표적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서장>은 중국 송나라의 대혜종고(1088~1163)가 주로 사대 부들로부터 받은 선(禪)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해준 편지 65편을 모은 책이다. <대해보각선사서>, <대해서장>, <서> 등으로 쓰거나 부르기도 하나 주로 ‘서장’이라 한다.

‘서장’은 편지라는 뜻으로, 선사들의 일상적인 소식이나 종지를 적은 서간문을 말한다. 여러 선사들이 서간문을 통하여 자신의 선법을 전했으며, 그 중 대혜종고의 <서장>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서장>은 미려하고 섬세한 번역과 자세하고 풍부한 주석이 돋보이며, 또한 와전과 오해의 부분에 대한 고증이 돋보인다. 다양한 문법 용례를 제시하고, 구결과 음을 담아놓음으로써 초보자라도 소리 내어 읽다보면 <서장>의 원문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박재원 기자

책 한 권에 ‘불교’ 정리

불교신강

문기정 지음 | 문앤북 펴냄 | 1만6천원



책 한 권에 ‘불교’를 담을 수 있을까? <불교신강>은 책 한 권으로 ‘불교’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신강>은 그래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에게 권한다. 이 땅 어디에나 남아 있는 불교 문화유산, 우리 삶 깊숙이 녹아 있는 불교적 가치관, 그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종교로서의 불교를 떠나 불교를 알아야 하며, 그것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게 저자의 말이며, 출간의 취지다.

사성제 · 12연기 · 8경도 · 육바라밀 등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불자로서 어렵게만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뽑아 설명하고 있다. <불교신강(佛敎新講)>이다.

박재원 기자

부처님의 계심을 선언한 영산불교 현지사가 세상에 던지는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저.
각 450쪽 475쪽 가격 각각 18,000원
21세기의 금강경.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계심을 선언하다

경전 및 해설서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 자재 만현 저. 380쪽. 가격 25,000원
(법화경)의 근간인 본문8품을 재편집하고 자재만현 큰스님의 해설을 실어서 법화경 이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역작

《영산불교 새천수경》
자재 만현 저. 131쪽. 가격 7,000원
관음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기존 <천수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이 편집한 역작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원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일불승의 입장에 선 새로운 금강경해설서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 저. 594쪽. 가격 15,000원
처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

행복하게 잘 사는 길
《관음태교》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187쪽. 가격 10,000원
태교를 통해 행복한 삶의 출발을 안내하는 길잡이

《관음태교에서 부처님 천도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320쪽. 가격 15,000원
불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작, 행복한 죽음을 안내하는 보배같은 책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30쪽. 무료배포
부처님께서 3악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베푸시는 특별한 의식이 천도제에 대한 해설

신불교 영산불교의 법세계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원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영혼체 윤회론》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158쪽. 가격 10,000원
불교역사상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 획기적인 영혼체윤회론을 천명하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339쪽. 가격 15,000원
금세기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에 대해 불자지성인들이 불교사적인 의미를 천착하고 있는 비평서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집 1 ~ 11권》
자재 만현 큰스님 저. 각권 500페이지, 가격 20,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진술한 이야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269쪽.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요약 해설하다

《붓다의 메시지 존평》
조우석 외. 512쪽. 가격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들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489쪽. 가격 1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수행적 측면에서 해설하다

《영산불교의 법세계》
영산불교사상연구소 저. 80쪽. 가격 10,000원
육도윤회의 실상, 청명염불 수행의 실제, 진정한 효행의 길인 현지사의 천도제를 설명하고 있다

《칙천무후》
송도현 저. 238쪽. 가격 15,000원
광명 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칙천무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말한다